

## 저작 형태가 교합 접촉 및 저작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

서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보철학 전공 조 리 과

저작은 교합과 악운동 뿐만 아니라 근신경계, 고위 중추까지 복합적으로 관여하는 기능적 행위이다. 교합양상은 다양하게 저작 형태에 영향을 끼치며 저작 효율에도 관여한다. 저작 형태는 다양한 모양을 가지나 두가지 전형적인 군 즉, 전방에서 관찰시 그 양상이 수직적이며 chopping 운동을 담은 군과 저작 형태가 주로 측방으로 이루어지며 grinding을 하는 군으로 나눌 수 있다. 본 연구의 목적은 저작 형태의 차이가 교합접촉 및 저작 효율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.

Saphon Visitrainer Model 3<sup>®</sup> (Tokyo Shizaisha Co. Japan)를 이용하여 정상교합을 가진 치과 대학생중 전형적인 저작 형태를 보이는 각 10명 씩을 피검자로 선택하였다. 3가지 하악위 (중심위, 작업측, 비작업측)에서의 교합접촉을 Ramitec<sup>®</sup> (ESPE, Germany)로 인기하여 천공부의 직경이 1 mm이하이면 1점, 1-2 mm 또는 직선상이면 2 점, 2 mm 이상이면 3점으로 평가하여 각 점수의 합으로 좌우 소구치 및 대구치의 접촉 지수를 측정하였다. 저작 효율을 평가하기 위해 땅콩 3 g ( $\pm 0.01$  g)을 20 회 저작하게 한 후 3회 입을 행구어 벨게 하였다. 체눈 크기가 각 0.425, 0.60, 0.85, 2.0, 4.0 인 체에 거른 후 65 ℃로 오븐에서 세 시간 말려 무게를 측정하고 중심 크기( $M_{50}$ )와 저작효율치 (R)을 계산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.

1. Chopping 형은 중심위에서 더 넓은 교합접촉점을 보였다 (  $P < 0.05$  ).
2. Grinding 형은 측방위에서 더 넓은 교합접촉점을 보였다 (  $P < 0.05$  ).
3. Chopping 형은  $M_{50}$  과 R 로 비교하였을 때 더 좋은 저작 효율을 보였다 (  $P < 0.05$  ).